

가벼운 항공사고라도 잦을 경우 항공사에 행정처벌

내년부터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가벼운 항공사고를 자주 낼 경우 해당 항공사들은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조종사 위주로 처벌해온 준항공사고(Aircraft Incident)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사고(Aircraft Accident)처럼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과 같이 인명피해나 항공기 파손이 없는 경미한 준항공사고의 경우에는 해당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전체 비행횟수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 준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운항정지, 노선면허 부분정지(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현재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과징금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사고 관련 처벌에 따른 항공사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처벌 대상 준사고의 기준도 항공사

와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관은 "그동안 준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 위주로 처벌해왔지만 최근 준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로 준사고를 자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활주로 이탈 아시아나기 블랙박스 불량품으로 판명

지난달 10일 김포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에 내장된 블랙박스가 비행기록 해독이 불가능한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항공기의 블랙박스가 해독불가능한 불량품으로 판명된 것은 국내 항공사상 유례가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착륙 과정에 활주로를 벗어나 2백여m를 질주했던 아시아나항공의 B767-300 여객기(HL7263)에 내장됐던 비행기록장치(FDR)가 해독이 불가능한 부적격품으로 판정됐다.

건교부는 이 장치의 해독을 시도해본 결과 비행자료 인출을 위한 작동이 초기에 정지되면서 재작동이 되지 않았고 일부 기록된 비행자료의 연속성도 없었으며 전체 비행기록 저장데이터의 20.2%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해당사고기의 사고원인조사를 조종사의 비행경향이나 엔진동작상태 등을 기록하는 비행정보기록장치(Q.A.R) 해독으로 대신하고 사고여객기와 동종인 아시아나 여객기 21대의 FDR을 긴급 점검하기도 했다

CPA항공, 역사상 최초 적자

홍콩의 캐세이 패시픽항공사가 역사상 최초로 순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꾸준한 흑자를 기록했던 캐세이 패시픽 항공사는 98년 상반기중 2천3백만 달러의 적자를 내 1억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작년 상반기와 큰 대조를 보였다. 승객이 전년대비 16%나 감소한 캐세이 패시픽의 적자 원인은 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과 홍콩달러의 강세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승객수는 감소하는 한편 좌석용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좌석 이용율은 작년의 71%에서 올해는 66.6%로 떨어졌으며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운 동

남아노선의 좌석이용율은 60% 이하로 감소했다.

아시아 항공사들 항공기 인수 연기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출고된 항공기의 인수를 연기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과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1999년과 2000년에 인수하기로 한 항공기의 인수를 연기하는 문제를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보잉과 협의 중에 있다.

관련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9년에 모두 11대의 와이드바디 여객기를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A330-300 4대, A330-200 1대, 보잉 747-400 3대, 747-400 화물기 1대, 보잉 777-200 1대와 777-300 2대 등이다.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2000년에 인수하기로 한 A-340-300 1대와 4대의 보잉777의 인도를 연기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우즈베키스탄 항공사 최초의 IL-114 터보프롭 여객기 인수

우즈베키스탄항공사가 타슈켄트 항공기 생산공장(TAPO)으로부터 양산형 IL-114를 인수함으로써 이 여객기를 인수한 최초의 항공사가 되었다. 이 여객기는

1990년 3월에 첫 비행을 한 후 1997년 4월에 임시로 형식증명을 취득했는데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사가 이 IL-114의 유일한 고객이다.

이 64인승 쌍발 터보프롭 여객기 구성품과 부품의 약 60%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대당 가격 1천3백만 달러이다. TAPO사는 여러 가지 약조건속에서도 IL-114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자금을 러시아의 수입은행으로부터 용자하는데 성공했으나 TAPO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과도한 관세와 세금이 개발된지 8년이나 지난 IL-114의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항공화물 적체해소 방안미련

건설교통부는 현재 미주지역 수출항공화물이 항공편 부족으로 적체가 심하여 지연수송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수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국적항공사의 미주노선 화물기 공급을 최대한 증편하는 한편, 외국항공사의 화물전세기 운항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항공사의 경우 동남아, 대양주 노선을 일부 감축해 미국지역 화물기 운항편수를 증회하기로 했고, 미주선에 임시편도 긴급 투입함으로써 미주지역 화물

기 공급력을 9월부터 지난 8월대비 약 15% 증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필요시에는 외국항공사 화물기 운항증편을 적극 허용하고 김포공항의 화물적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주지역 외국항공사 화물기 운항현황은 6개 항공사 주42회이다.

대한항공, 에어프랑스와 공동운항 제휴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조양호 사장과 에어프랑스의 장 시힐 스피네타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운항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서울-파리 노선에 항공편명을 공유하고 좌석을 공유하며 좌석을 공유하게 되며, 현재 운항중인 서울-파리 주 6회, 파리-서울 주 6회 등 총 주 12회의 항공편중 서울-파리 양사 각 1편씩 모두 2편을 제외한 10편의 항공편을 공동운항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유럽지역에서 보다 풍부한 연결편 스케줄을, 에어프랑스는 서울에서 아시아지역으로 보다 다양한 다양한 연결편 스케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